

# 농담? 국민이 진짜 화난건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

### 이정희 통합당 대표 '이석기 해명'에 역풍

### “총기탈취·시설파괴는 농담...내란음모 없다” ‘날조’라 하더니 뒤늦은 변명에 비난 쏟아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에 대해 ‘농담’이었다고 뒤늦은 해명을 했다. 그러나 “그 발언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 분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 분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 분에서도 반대하는 것”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지난 5월12일 모임과 관련, “130여명 가운데 한두 명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다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며 “그 분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 분에서도 반대하는 것”

그러면서 “분반에 따라서는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총 등의 용어를 대표 발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

도 있다고 한다”며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내란 모의’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지하조직의 구성원들도 아니며,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된 분반토론은 7개 조 가운데 1개 조, 20여명의 대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른 6개 분반의 대

화내용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며 “(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지적했다. 특히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쿠데타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당은 늘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는다.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누리꾼들의 역풍을 맞았다. 누리꾼들은 “이정희 발언이 농담처럼 들린다”, “그 좋은 머리로 한다는 소리가 농담이냐-”, “KBS 개그콘서트 제작진은 이정희를 특채하라”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그 말은 맞기도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너무 허황하고 황당하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농담’이죠. 문제는 그 농담을 정작 본인들은 대단히 진지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이다 ‘미결\* \* \*’은 “일반 국민이 술 먹다가 농담할 수 있어.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130여명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흥분했다. ‘로또\* \* \*’은 “하긴 했다는 얘긴데... 농담할 게 따로 있지”라고 말했으며 ‘Lun\* \* \*’은 “말한 적 없다더니 이제 와서 농담이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또 ‘slas\* \* \*’은 “그 동네는 그게 농담인가”, ‘kims\* \* \*’은 “총칼을 소재로 농담을 하면 위험하다”, ‘shim\* \* \*’은 “예전엔 그런 발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번엔 농담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지금 농담 따먹기 하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일부 다른 누리꾼들은 국정원이

### 이석기 체포안 가결 이후 절차



# 부정경선·종북 논란 거쳐 내란음모로 '정치적 사형'

### 이석기의 추락

원내 제3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시작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하기까지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지난 1년 4개월여 간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애국가에 국기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 여파 등으로 잇달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의원은 4일 자신을 겨냥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추락’의 바닥에 도달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5월, 당선된

지 날도 안 돼 불거진 진보당 부정경선에서 비롯됐다.

진보·좌파 진영에서조차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비례대표 선출 투표에서 물표를 받아 1위를 차지한 배경을 놓고 ‘대리투표’, ‘유령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앞선데 달린 격으로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C를 통해 선거 비용을 과다 계산해 돌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정경선 논란과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이 의원이 국

회의원 당선 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종북 논란의 한 복판에 섰다.

그 와중에 터진 ‘애국가 발언’은 종북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진보당 부정경선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6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진보당은 부정경선에 이어 ‘종북 딱지’까지 붙은 이 의

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당적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진보당의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져 한 지붕 안에 있던 국민참여당계와 진보신당 탈당파, 민주노동당 비주류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판살림’을 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내란 음모는 이 의원의 추락에 ‘결정타’가 됐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회합에서 북

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서 ‘국가전복세력’의 우두머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회에서 조용한 의정 활동을 해온 이 의원은 사생활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학생 운동 시절 만나 결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둔 이 의원은 지난 99년 민혁당 사건 당시 도주 생활을 하던 동안 이혼했고, 1년에 한 번 정도 미국에 거주 중인 전 부인과 자녀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의원에게는 ‘정치적 사망선고’가 되고 말았다. /연합뉴스

### 소치 산수도와 현대 디자인의 행복한 만남



허련의 '산수도'를 모티브로 한 작품



### (43) 남종화와 디자인

전쟁의 최종 목표가 '이기는 것'이라면 디자인의 최종 목적은 "그래서, 나는 샀다"라고 한다. 같은 기능과 용도라 해도 특별한 가치와 감성을 더해 새로운 디자인이 입혀졌을 때 눈길을 사로잡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디자인은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지만 때로 그 자체로 위트가 되고, 새로운 문화가 된다.

5일 개막식을 갖고 59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디자인이 참 착하고 편하고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과거가 현대와 만나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재탄생하고 라탄, 대나무, 땀 등 자연소재가 산업화되는 슬로 프로덕션 등은 디자인의 미

세계를 전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슴이 뛰었다.

남도 화백의 전통을 상징하는 남종화의 대가 소치(小痴) 허련(許鍊·1809~1892)의 '산수도'도 디자인비엔날레를 빛내준다.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제안한 '동양화를 모티브로 한 4인의 인터랙션'에서 소치의 작품이 등장한다. 소치의 산수도를 재드로잉하여 한지에 디지털 프린팅해 걸고 영상에 비친 달과 정겨운 연못을 더한 작품이다. 간결 소박미의 정수인 남종화가 현대 디자인과 접목해 만들어내는 단아하고 깊은 미감은 관람객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스승 추사로부터 '문자향 서풍기(文字香 書卷氣)'를 강조한 남종화를 배워 당대 최고 명성을 떨쳤던 소치의 화풍은 아들 미산 허형, 남농 허건, 외재 허백련 등 명가 5대에 걸친 화맥을 형성했고,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창조적 모티브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학사>

### 빛의만평

- 김중두



체포동의의 하라!!

## 생각없이 움직인 한 손가락의 TOUCH!!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TOUCH!!

함부로 내뱉는 말이나 채팅상에서 쉽게 내뱉은 말이  
당신에게는 그저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일보